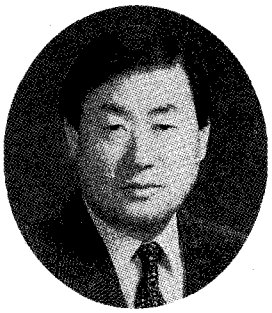
우리는 「낙농호」라는 한 배를 탄 동지



임 문 식
낙농자조금운영위원(부산 · 경남우유조합장)

낙농자조금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우유 소비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낙농자조금에 의한 공익적이고 공통분모적 우유소비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각 유업체별 유제품 홍보만이 주류를 이루었고 낙농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공익적 홍보는 없었다.

'98년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분유체화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 송아지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사태까지 빚어졌었고 급기야는 송아지를 수매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한해였다.

우리 낙농산업은 위와 같은 불황을 수없이 겪어 왔었지만 단지 긴급 진화에만 그침으로서 불황의 불씨는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떨어질 불에 대한 준비 소홀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쩌면 지나간 과거에는 관대하고 다가올 미래에는 무관심하며 현재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동일 선상에 존재하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의 영속성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농산업 악순환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 악순환은 막아야 하며 피치 못할 이유로 불황을 맞더라도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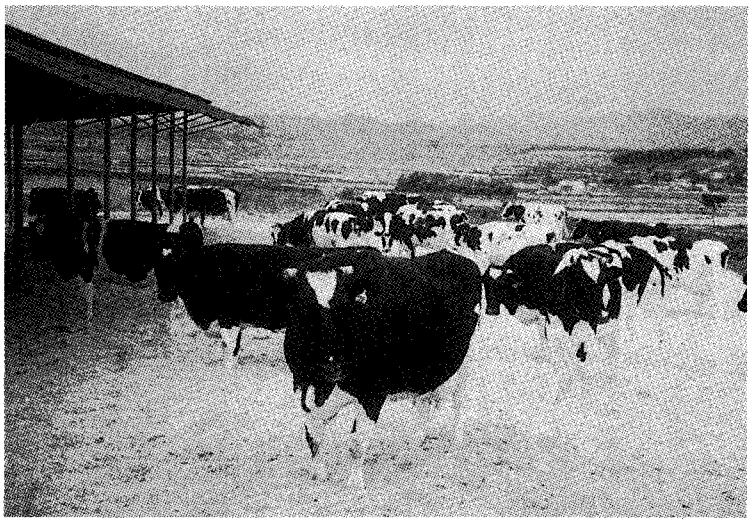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통상적 악순환 과정은 잉여 원유 발생 → 분유체화 → 유업체 경영 악화 → 목장경영 악화라는 도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원유 수급 불안정 현상은 간혹 우리 낙농업계 전반을 곤궁에 빠뜨리기도 한다.

사육두수 증가 이상 우유 소비도 증가될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장경제와 소비경제는 낙농업계의 바램과 상반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가 전량 소비될 수 있다면 낙농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우유소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홍보라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는 낙농가, 유업계, 정부가 삼위일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의 일환으로

'99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농자조금에 의한 우유소비 홍보 사업은 낙농가 모두 십시일반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낙농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경우 우리 낙농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원유수급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올해에도 이미 소정의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낙농자조금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우유 소비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낙농자조금에 의한 공익적이고 공통분모적 우유소비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각 유업체별 유제품 홍보만이 주류를 이루었고 낙농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공익적 홍보는 없었다.

'99년 7월~8월 원유 소비 자체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고, '98년 낙농산업 불황의 주역이었던 분유도 현재는 대폭 줄어서 적정 재고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으로 우유 소비가 증가하고 분유 적체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낙농자조금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자조금 자체를 불필요한 경비 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금년과 같이 소기의 사업 목적을 거양하였다면 결코 불필요한 경비는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도 낙농가 스스로 조성한 자조금만큼은 사업 보조를 하고 있으며 전체 낙농가들이 동참할 때 유업체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일부 낙농가중 사업참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정부의 지원이나 유업체의 동참도 가로 막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낙농자조금 조성사업은 전체 낙농가가 참여함으로써 그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낙농선진국에서도 우유소비 부진으로 인한 불황을 낙농자조금 조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기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낙농산업은 뜻하지 않게 언론매체의 오인 보도 등으로 심한 홍역을 겪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홍역을 당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홍보할 기능이 없어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실정이었고 자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조성되어 있었다면 상황 전개는 분명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목장도 이제 규모화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우유 소비 증감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우유소비 증가 둔화에 따른 각 유업체별 분유 재고 부담은 결국 낙농가와 유업체가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99년 처음으로 시작한 낙농자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다가올 2000년에는 한 사람의 낙농가도 예외 없이 참여하는 낙농자조금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하여 「낙농호」라는 한배를 탄 동지로서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갑시다.

〈필자연락처 : 051-634-1237〉